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아버지와 유산을 상기시킴으로써 서로 주의를 주는 것이 너희의 의무이다. 이 안에 모든 이를 위한 유익이 들어 있다.
- 질문:** 과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심오한 비밀을 너희 자녀들은 이해하느냐?
- 대답:** 영혼이 지극히 미묘한 별이며 모든 산스카라가 영혼에 들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한다. 영혼은 몸을 통해서 자기의 배역을 연기한다. 육신은 살아 있지 않은 반면, 영혼은 살아 있다. 마찬가지로 지고의 영혼도 역시 별이다. 그는 일체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 그는 인간 세상의 씨앗이다. 그는 진리이며 살아 있는 존재이다. 그가 천 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이 깊은 비밀을 이해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제일 먼저, 너희 자녀들은 영혼들과 지고의 영혼을 알아보는 인식을 모든 이에게 줘야 한다.
- 노래:** 어머니, 오 어머니, 당신은 모든 이에게 행운을 주시는 공여자입니다.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말한다: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이 되어라!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주의를 주어왔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역시 서로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금방 그 도취감을 느낀다. 서로에게 다시 한 번 알려줌으로써, 너희는 서로에게 주의를 준다. 누군가를 만나면 너희는 “나마스테”라며 서로를 반기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직 너희 자녀들이 서로에게 주의를 줄 때에만 유익이 있다. 모든 것이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라는 이 표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에 아버지, 지위, 유산에 대한 지식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너희의 첫 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들에게 상기시키면, 그들은 조심할 것이다. 너희들은 거듭 서로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 계속해서 아버지와 유산을 기억하세요.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가 되어서, 당신 자신도 몸이 없다고 여기고, 몸 없는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기억은 요가를 의미한다. 너희들의 몸이 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오직 요가를 통해서뿐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때의 노력이다. 마지막에 각자 카르마티트 단계에 도달하면 너희는 완전히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직은 너희가 여전히 노력가들이다. 지금 현재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지각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신인들 등을 숭배할 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신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모든 이의 전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알아야 할 주된 것이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혼동되어 있기도 하다. 그들은 “신은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저들에게 얘기해줘야 할 첫 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과 지고의 영혼의 차이점이며, 또한 이 지식이다. 모든 이가 영혼이라는 것을 너희는 안다. “자비로운 영혼, 죄 많은 영혼”이라고 일컬어진다. “죄 많은 지고의 영혼”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불순한 세계이다. 신은 불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들이 맨 처음에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영혼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영혼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영혼이다. 이 기관들을 통해서 영혼이 모든 것을 한다. 영혼의 형태는 무엇이야? 그들은 “이마의 중앙에서 경이로운 별이 빛난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영혼의 형태를 설명해줘야 한다. 영혼의 형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영혼은 극도로 미묘하다. 영혼의 형태는 영(제로), 즉 한 점이다. 너희들은 이제 영혼이 얼마나 미묘한지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해야만 된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영혼이 몸을 떠납니까? 어디서 떠나는 것인가요?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두개골을 통해서 몸을 떠납니다. 일부는 그가 눈을 통해서 몸을

떠난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몸에는 문이 여러 개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참으로 경이롭다! 일부는 묻는다: 영혼이 몸을 어떻게 떠나나요? 그들은 “영혼이 몸에 어떻게 들어오나요?”라고는 묻지 않는다. 제일 먼저 너희는 영혼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토록 작은 영혼에 84생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가장 경이롭다. 영혼은 진정 별과 같다. 크다고는 할 수 없다.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아주 작게 보인다. 그러나 영혼은 크지 않다. 그들은 한 가지 형태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일 먼저 영혼들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이 영혼인 나는 어떻게 이 몸에 들어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마치 별이 있는 듯한 비전들을 본다. 그 작은 영혼인 저 분 안에 모든 지식이 다 기록되어 있다. 저 영혼은 단 한 분뿐이다. 이것은 대단한 기적이다! 신의 형태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사실 영혼이 그러하듯이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아버지이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이들은 더 크고 더 작지만, 영혼들은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다. 영혼들의 형태와 지고의 영혼의 형태에는 아무 차이가 없지만, 양쪽의 역할과 산스카라들은 다르다. 아버지가 어떤 산스카라를 가지고 있으며, 너희 영혼들이 어떤 산스카라들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가 설명한다. 영혼들과 지고의 영혼의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과 지고의 영혼이 동일한 하나라고 얘기해왔다. 그들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신이 있고, 또한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도 있다. 그들 각각의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 자가담바, 사라스와티는 지식의 여신이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사라스와티의 영혼은 분명히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지식의 여신이라고 부를 뿐이다. 신문에 기사가 실릴 때 너희는 그들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은 사라스와티가 지식의 여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녀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며, 언제 그것을 줍니까? 그녀는 분명히 신에게서 지식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의 형태는 무엇이냐? 그녀는 어떻게 “지식의 여신”이라는 이름을 받았느냐? 지식으로 충만한 것은 신이다. 그가 사라스와티를 어떻게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느냐? 이 한 가지 측면만 갖고도 너희는 합류시대에서 누군가가 “부각되게” 만들어야 한다. 바바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설명하는 반면, 산제이(자그디시 바이)는 그것에 관해서 글을 쓰는 도구이다. 저 사람은 1등의 주연배우이다. 그는 바바의 오른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델리에 살아야 하는 것이 드라마의 운명이다. 그는 지난 사이클과 동일한 배역을 맡는다. 아르주나의 이름이 주된 것으로 기억된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한다. 제일 먼저 너희는 영혼들과 지고의 영혼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영혼이 어떻게 별과 같고, 그 안에 모든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해주었다. 과학자들은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산스카라들은 영혼에 들어 있다. 영혼은 별이다. 좋다, 그러면 신의 형태는 무엇이냐? 그는 지고의 영혼이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여 부르는, 천 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다는 노래는 틀린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그저 너희 영혼들에게 지식이 없을 뿐이다. 지고의 영혼인 나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유일한 차이이다. 마야는 너희 영혼들을 불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영혼이 불이 꺼져버린 불꽃인 것은 아니다. 다만 아버지와 창조에 대한 지식이 영혼들에게서 사라진 것 뿐이다.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받고 있다. 바바에게는 지식이 있고, 그것은 영혼 안에 들어있다. 그가 더 큰 것이 아니다. 그는 지식으로 충만하다고 불리고, 사라스와티도 역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불린다. 그러나 그녀가 언제 지식을 받았느냐? 사라스와티가 누구의 딸이냐?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것이 너희의 가슴에 들어 있어야 한다. 누가 신, 아버지이냐? 너희들은 그가 별이며, 모든 지식을 그의 내면에 갖고 있다는 것도 역시 설명해야 한다. 신, 아버지는 인간 세계의 씨앗이다. 그는 모든 이의 무한한 아버지이다. 그는 진리이며 살아 있는 존재이다. 그는 진정한 지식을 그 안에 갖고 있다. 그는 또한 진리라고도 불린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오직 한 아버지만이 창조주이다. 그러니 그는 틀림없이 창조 전체에 대한 지식을 내면에 갖고 있다. 그는 나무의 씨앗이다. 영혼은 살아 있는 반면, 몸은

살아 있지 않은데, 영혼이 그 안에 들어오면 살아 있는 것이 된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내가 바로 그 한 분이다. 영혼은 더 클 수도, 더 작을 수도 없다. 너희들이 영혼인 것처럼 신은 지고의 영혼이며 그에 대한 찬양은 모든 찬양 중에서 가장 높다. 그는 인류 세계의 씨앗이다. 오직 인간들만이 그를 기억한다. 아버지가 저 위에 거주한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영혼은 이 기관들을 통해서 말한다: 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여. 사람들은 육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 이제 너희는 영혼의식이 되었다. 너희들이 영혼이라는 믿음이 너희에게는 있다. 오직 무체인 분만이 신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너희들은 그의 자녀들이다. 신이 와서 너희에게 지식을 준다. 그는 지식으로 충만하며 희열로 가득한 분이라고 불린다. 그는 자비의 대양, 행복의 대양, 평화의 대양이라고 찬양 받아 왔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반드시 유산을 받아야 한다. 그가 기억되어온 것은 그가 어느 시점엔가 와서 유산을 주었기 때문이다. 신인들에 대한 칭송과 아버지에 대한 찬양은 별개이다. 그는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이다.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씨앗이라고 불린다. 제일 먼저 너희는 그를 소개해야 한다. 경전에는 그가 엄지손톱의 형상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우리들은 그가 한 점의 빛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들은 또한 그런 그림도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는 지극히 미묘하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겠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당신들은 그림에 왜 그렇게 큰 형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가 달리 어떻게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는 단지 하나의 점인데, 당신들이 그분을 어떻게 숭배하겠습니까? 그에게 어떻게 우유를 바치겠습니까? 그 형태는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고의 지역에 거주하는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라는 것을 너희는 이해한다. 그 지고의 거주지가 우리들의 스위트홈이다. 비물질 세계가 우리들의 원래의 집이고, 그 다음에 서틀리전이 있고, 그리고 물질 세계가 있다. 아버지는 비물질 세계에 거주한다. 영혼이 말한다: 나는 이런 신체기관들조차 없는 니르바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한다. 영혼이 와서 몸을 채택한다. 영혼이 어디로 떠나는지, 너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영혼이 태아에게 들어오면, 그 태아가 살아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영혼은 지극히 작지만, 그의 모든 산스카라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각 생의 산스카라들이 하나씩 차례로 나온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아주 잘 이해해야 된다. 너희들은 또한 사라스와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녀는 누구의 딸이냐? 지금 이때에는 너희 중 누구도 여신이라고 불릴 수 없다. 사라스와티는 브라마의 딸이다. 그러므로 그는 틀림없이 지식의 신일 것이다. 브라마의 연꽃 입을 통해서 지식이 주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브라마의 이름도 역시 언급된다. 지금 이때에 너희는 브라민들이다. 영혼이 비록 순수해지고 있을지 몰라도 몸은 순수해질 수 없다. 이것은 타모프라단한 몸이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자녀들아, 계속 서로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며 계속해서 전진해라. 당신은 아버지와 유산을 기억하고 있나요? 당신은 자아-각성의 원반을 기억하나요? 바바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주의를 준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잠의 정복자가 된다. 이것으로 크나큰 소득을 번다.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피로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신체적인 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피로가 있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심지어 밤에도 깨어 있으면서 바바와 얘기를 해라. 너희들은 동물들이 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지식의 대양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다이빙하고 지식의 대양을 휘저음으로써, 너희가 많은 요점들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는 알 수 있다. 그것들은 불쑥 나타난다. 이것이 밤에 깨어 있으면서 지식의 대양을 휘젓는 것이다. 사람들은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아버지는 지식의 대양이고, 너희는 그에게서 유산을 받을 것이다. 황금시대에 원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에 속했던 이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어떻게 왕국 전체가 유산을 받았느냐? 철시대에서 황금시대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된다. 슬픔의 나라인 철시대의 세상과 그 나라, 행복의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브라마의 밤과 브라마의 낮은 무척 다르다. 너희들은 지금 신, 아버지에게서 지식을 받고 있다. 사라스와티가 하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저 지식의 여신인 사라스와티의 그림을 받고는 행복해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신을 소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도 역시 소개해야 한다. 아버지가 와서 이 지식을 주고 보통 사람을 나라얀으로 바꿨다. 각자가 하는 일을 아주 요령 있게 설명해라. 사라스와티도 역시 브라마의 입으로 태어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틀림없이 와서 브라마를 통해 입으로 태어난 자손들을 창조했다. 그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지식을 주었느냐? 물동이가 사라스와티에게 주어졌다고 일컬어진다. 그들은 중간에서 브라마를 빼버렸다. 그가 브라마의 몸에 들어가서 어머니들에게 물동이를 주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브라마도 역시 틀림없이 지식을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브라마가 손에 경전들을 들고 있는 모습도 역시 보여왔다. 브라마의 지시들은 아주 유명하다. 그는 모든 베다와 경전들의 핵심요지인 지시도 역시 주었을 것이다. 쉬브 바바는 브라마를 통해서 설명한다. 브라마가 어디서 왔느냐? 이 수레가 어디서 왔느냐? 아무도 모른다. 바바가 이제 너희에게 설명해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밤에 깨어 있으면서 지식의 대양을 휘저어라. 지식의 대양에 몸을 담아라.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잠의 정복자가 되어라.
2. 자아-각성의 원반을 계속 돌려라. 서로에게 아버지와 유산을 상기시켜 줘라. 서로 주의를 주며 계속 전진해라.

축복:

비축해 놓은 협조로 모든 과제에 성공을 성취하는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라. 봉사의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 모든 이에게 협조해줘라. 모든 이에게 한결같이 협조하고 잘못된 과제는 뭐든 좋은 염원으로 바로잡아라, 망쳐진 산스카르, 망쳐진 기분 등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모든 선물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이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어, 이 사람이 그렇게 했지,”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하면서도 너희들이 비축해둔 협조의 재고로 그것을 변화시켜라. 어떤 이에게 어떤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럴 때도 그 간격을 메우는 데 너희의 협조를 사용해라. 이것이 공여자 마스터가 되는 길이다.

솔로건:

한결같이 명랑하게 지내려면 드라마의 모든 장면을 초연한 관찰자로서 지켜봐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